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 목 차 >

- | | |
|---------------------|----------------------------|
| I. 조사개요 | I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
|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IV. 전문건설업 경영 애로사항 |

요 약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분기 대비 10.5p 상승한 67.1로 나타남. 동일 기간에 조사된 타 기관들의 경기실사지수(BSI)들도 대부분 4/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은 지난 분기에 이은 상승세를, 타 기관 조사치의 대부분은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이어온 상승세를 유지함. 이는 1분기의 SOC예산집행과 함께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주택착공물량 등의 추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같은 상승세는 추후 SOC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분기 들어 금년의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의 4.6%에서 2.9%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SOC예산 집행실적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5.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체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따라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임.

<2015년 1/4분기 평가 및 2015년 2/4분기 전망>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09	1/4분기 평가	39.0	29.5	42.6	40.2	35.7	40.1	33.2	52.6
	2/4분기 평가	46.9	50.0	48.9	44.9	52.9	45.0	47.5	45.6
	3/4분기 평가	52.6	52.0	50.8	54.2	62.3	49.6	51.4	55.3
	4/4분기 평가	40.1	44.4	36.1	41.1	39.4	40.3	39.8	40.8
2010	1/4분기 평가	41.4	37.5	45.0	40.3	42.5	40.9	40.6	43.0
	2/4분기 평가	40.8	44.4	39.4	40.8	44.0	39.8	41.8	38.9
	3/4분기 평가	22.2	25.0	18.3	24.2	23.3	21.8	24.2	19.0
	4/4분기 평가	35.0	41.2	35.9	31.6	32.1	36.0	38.3	29.5
2011	1/4분기 평가	23.9	31.3	27.8	22.2	30.0	21.4	27.3	17.8
	2/4분기 평가	38.8	75.0	25.0	38.9	40.6	38.1	42.2	31.4
	3/4분기 평가	34.4	16.7	47.6	33.9	31.9	35.5	37.6	29.7
	4/4분기 평가	30.8	30.0	32.9	32.3	36.9	32.3	36.0	24.6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전망	65.7	85.7	68.0	60.5	78.6	57.1	77.8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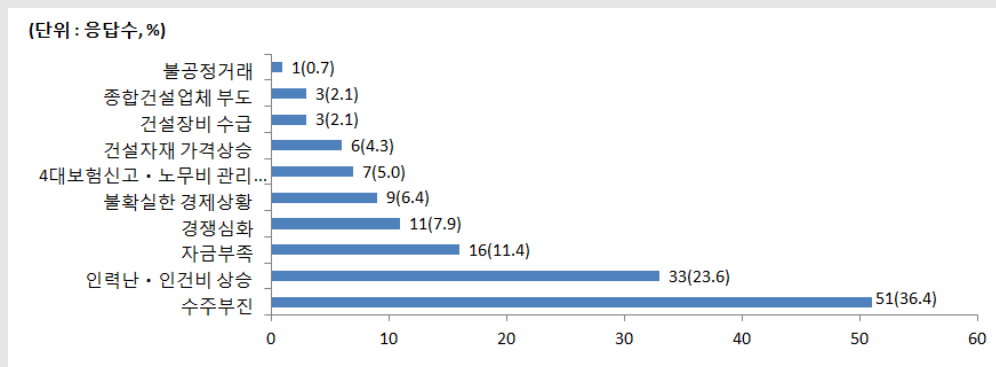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세부항목별 지수를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총 8개 항목 중 3개 항목(원도급·하도급·공사대금수급)은 상승, 4개항목(자금조달·인력수급·인건비·자재수급)은 하락, 1개 항목(자재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

<세부항목별 2015년 1/4분기 평가 및 2015년 2/4분기 전망>

구분	전체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실적	71.4	85.7	72.0	68.4	85.7	61.9	96.3	55.8
	전망	65.7	57.1	80.0	57.9	78.6	57.1	85.2	53.5
하도급	실적	61.4	71.4	60.0	60.5	64.3	59.5	85.2	46.5
	전망	62.9	57.1	60.0	65.8	60.7	64.3	81.5	51.2
공사 대금수급	실적	90.0	100.0	88.0	89.5	89.3	90.5	88.9	90.7
	전망	81.4	71.4	80.0	84.2	71.4	88.1	77.8	83.7
자금 조달	실적	62.9	85.7	68.0	55.3	82.1	50.0	85.2	48.8
	전망	60.0	57.1	60.0	60.5	67.9	54.8	70.4	53.5
인력수급	실적	81.4	100.0	72.0	84.2	89.3	76.2	85.2	79.1
	전망	77.1	85.7	72.0	78.9	75.0	78.6	70.4	81.4
인건비	실적	54.3	100.0	68.0	36.8	78.6	38.1	74.1	41.9
	전망	57.1	100.0	56.0	50.0	75.0	45.2	63.0	53.5
자재 수급	실적	95.7	100.0	92.0	97.4	96.4	95.2	96.3	95.3
	전망	94.3	85.7	92.0	97.4	89.3	97.6	88.9	97.7
자재 가격	실적	49.4	88.9	43.5	44.4	66.7	42.9	46.9	51.1
	전망	64.3	100.0	56.0	63.2	71.4	59.5	70.4	60.5

- 2015년 1/4분기의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은 수주부진(36.4%), 인력난·인건비 상승(23.6%), 자금부족(11.4%)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그 밖에는 경쟁심화(7.9%), 불확실한 경제상황(6.4%),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5.0%), 건설자재 가격상승(4.3%), 건설장비수급(2.1%), 종합건설업체부도(2.1%), 불공정거래(0.7%)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경기변동은 기업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기업가의 의도나 심리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경기실사지수는 다른 경기지수와 달리 내수, 수출, 설비투자, 고용수준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조사할 수 있음. 또한 조사방식이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경기대응성이 높고, 경제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수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경기실사지수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¹⁾.
 - 또한 건설, 제조, 설비 등 산업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도급업체의 경기인식과 판단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했음.
 - 본 조사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타 조사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 조사 분석은 향후 경기전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뿐 아니라,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1) 전문건설업체는 경기실사지수는 2009년부터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조사내용

- 2015년도 1/4분기 전문건설업의 경기판단과 향후 2015년 2/4분기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총 10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건설업 경기판단, 세부항목(공사물량, 자금사정, 인력수급, 자재수급) 및 경영애로사항으로 구성됨.

표 1 |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사업체 개요		- 기업명 및 작성자 일반사항
건설 경기 전망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전반적 경기실적
	항목별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차기분기 건설경기 전망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경영애로사항		- 애로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 기술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선별된 308개사의 모니터링단에게 건설경기 판단에 관한 자체식 설문조사(2015.5.1~6.13)를 전화와 이메일,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실시함.
 - 설문조사의 표본은 기업규모(대·중·소)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기업규모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업종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대형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496억원 이상, 중형업체는 67억원 이상 496억원 미만, 소형업체는 67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분함.

* 본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지방권으로 구분함.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9개사(32.1%), 지방권 업체는 209개사(67.9%)로 이루어짐.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 중 70개사(회수율: 26.9%)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에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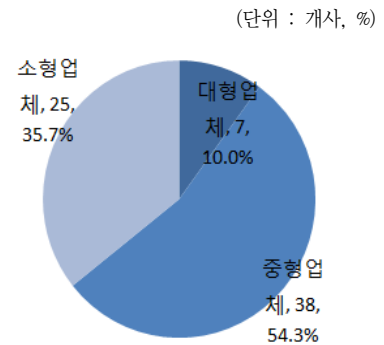
- 설문지가 회수된 83개사는 대형업체 7개사(10.0%), 중형업체 38개사(54.3%), 소형업체 25개사(35.7%)로 구성됨. 이중 수도권 업체는 28개사(40.0%), 지방권 업체는 42개사(60.0%)로 이루어짐.

표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를 위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구분	배포(개사, %)	회수(개사, %)
수도권	99(32.1)	28(40.0)
지방권	209(67.9)	42(60.0)
전체	308(100.0)	70(100.0)

표 3 | 응답업체의 기업규모별 현황

구분	업체수(%)
대형업체	7(10.0)
중형업체	38(54.3)
소형업체	25(35.7)
전체	70(100.0)



- 응답업체들의 주업종별²⁾ 분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가장 많은 16개사(22.9%), 다음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13개사(18.6%), 토공사업이 8개사(11.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6개사(8.6%), 비계구조물공사업이 6개사(8.6%)로 나타남. 그리고 강구조물공사업과 석공사업이 각각 4개사(5.7%)로 나타남.

표 4 | 응답업체의 업종별 현황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철근콘크리트	16(22.9)	금속창호	6(8.6)	석공사	4(5.7)
상하수도설비	13(18.6)	비 계	6(8.6)	도 장	3(4.3)
토 공	8(11.4)	강구조물	4(5.7)	기 타	10(14.2)
합계			70(100.0)		

- 한편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분석을 위해 건축 및 토목중심 업종을 공사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표-5>와 같이 구분함.

표 5 | 전문건설업 업종 구분 기준

구 분		업 종
전문건설업	건축중심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등
	토목중심 업종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2) 응답업체들은 다수 면허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파악함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1.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4/4분기보다 10.5p 상승한 67.1로 조사됨. 동일 기간에 조사된 타 기관들의 경기실사지수(BSI)들도 대부분 4/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은 지난 4분기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타 기관 조사치 역시 대부분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이어온 상승세를 유지함. 이는 이번 1분기의 SOC예산 집행과 함께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주택착공물량과 건축 인허가 면적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건설업계의 성수기인 3월 이후로 철근 등의 기초자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들 공사의 진척에 따라 내부 마감재 등의 자재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지난 분기의 조사시점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장기불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와 함께 금년의 건설투자가 최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음.
- 하지만 이같은 상승세는 SOC예산집행의 지속실행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이번의 조사결과 역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즉 민간부문의 수주확대와 SOC중심의 공공예산집행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임.
 -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의 건설투자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7.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건설업 성장률 역시 2%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분기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금년의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의 4.7%에서 2.9%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SOC예산 집행실적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즉 건설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수주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2015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5.7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자칫 정체될 우려가 제기된 것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됨.
- 종전의 2015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우리 정부가 3.8%, IMF와 OECD는 각각 4.0%와 3.8%, 주요 연구기관들은 3% 중후반이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과 IMF는 이를 3.1%로 하향조정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2%대 후반으로 낮춰잡고 있음.
- 이 때문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할 계획임.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결과에 따라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임.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는 1.1p(84.6점→85.7점)상승, 중형업체는 30.4p(70.4점→40.0점)하락, 소형업체는 42.1p(39.5점→8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유의할 부분은 지난 4분기에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중형업체들의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임. 반면 소형업체들의 응답치는 4분기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형업체들의 경우 건설공사물량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빨리 체감하는 반면 중소형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경우에는 제도자체의 입안보다도 지속적인 시행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6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5년 2/4분기 전망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09	1/4분기 평가	39.0	29.5	42.6	40.2	35.7	40.1	33.2	52.6
	2/4분기 평가	46.9	50.0	48.9	44.9	52.9	45.0	47.5	45.6
	3/4분기 평가	52.6	52.0	50.8	54.2	62.3	49.6	51.4	55.3
	4/4분기 평가	40.1	44.4	36.1	41.1	39.4	40.3	39.8	40.8
2010	1/4분기 평가	41.4	37.5	45.0	40.3	42.5	40.9	40.6	43.0
	2/4분기 평가	40.8	44.4	39.4	40.8	44.0	39.8	41.8	38.9
	3/4분기 평가	22.2	25.0	18.3	24.2	23.3	21.8	24.2	19.0
	4/4분기 평가	35.0	41.2	35.9	31.6	32.1	36.0	38.3	29.5
2011	1/4분기 평가	23.9	31.3	27.8	22.2	30.0	21.4	27.3	17.8
	2/4분기 평가	38.8	75.0	25.0	38.9	40.6	38.1	42.2	31.4
	3/4분기 평가	34.4	16.7	47.6	33.9	31.9	35.5	37.6	29.7
	4/4분기 평가	30.8	30.0	32.9	32.3	36.9	32.3	36.0	24.6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전망	65.7	85.7	68.0	60.5	78.6	57.1	77.8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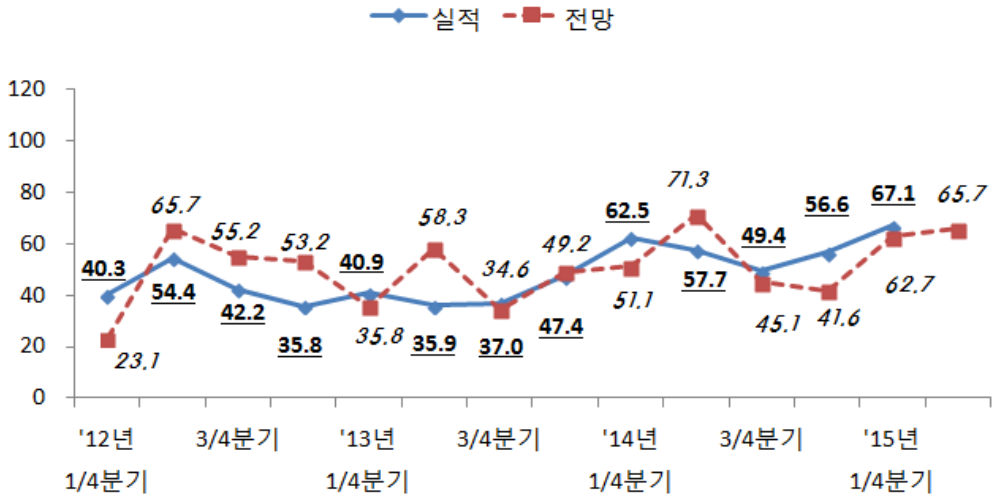


그림 1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 및 전망 추이

- 2015년 1/4분기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업체가 64.3, 지방권업체가 69.0으로 지방권업체가 더욱 높았으며 2015년 2/4분기 전망은 수도권이 78.6으로 더욱 높아진 반면 지방은 57.1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4분기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건축중심 업종과 토목중심 업종이 각각 77.8과 60.5, 2015년 2/4분기 전망은 건축중심 업종이 77.8인 반면 토목중심 업종은 58.1에 그쳐 건축과 토목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통계청의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건설투자는 충남·세종·대전지역이, 건설수주는 대전·서울·광주·경북·강원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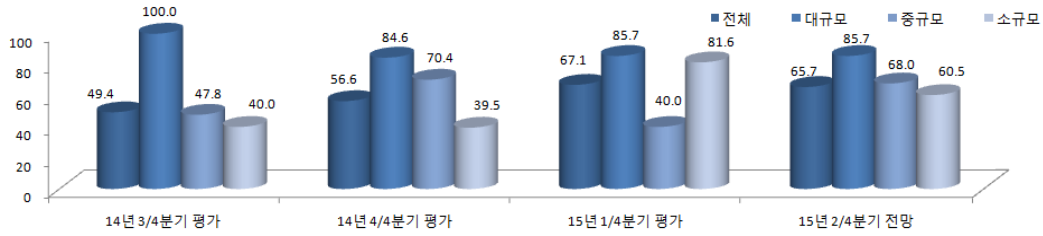


그림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기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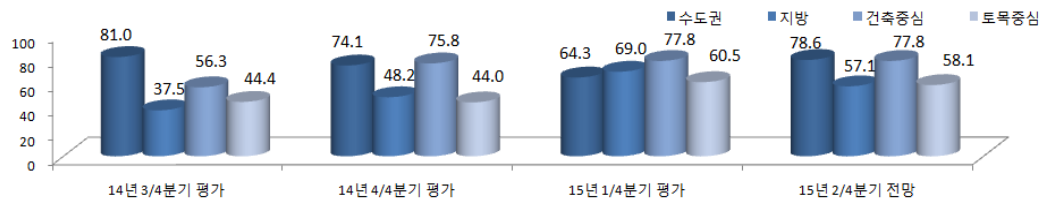


그림 3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지역 및 업종별)

2. 기관별 경기실사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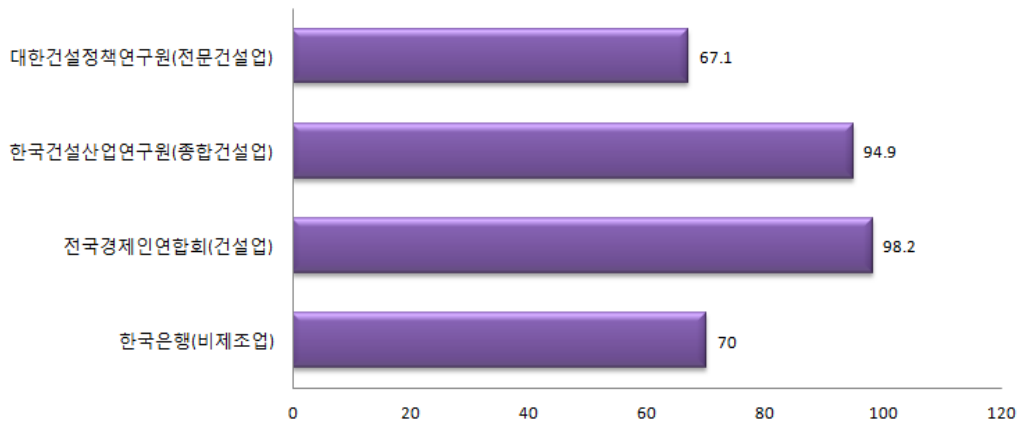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의 기관별³⁾ 경기실사지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8.2(103.1점→98.2점), 한국은행(건설(비제조업))이 70(60점→70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4.9(91.7점→94.9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7.1(56.6점→67.1점)로 나타남.
- 4분기의 경기실사지수를 지난 3분기의 조사값과 동일 시점들로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조사값이 상승했으며, 한국은행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⁴⁾.
- 통상적으로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는 타 기관의 조사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에 속한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하도급 중심의 영업활동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임.

3)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와 동일 조사시점의 수치값을 비교

4) 단, 월별로 조사되어 동일 분기 내에서도 등락이 나타나는 타 기관의 경기실사지수와 달리 분기별로 시행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는 동일 기간 동안 발생하는 등락폭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건설동향

- 또한 전문건설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음에 따라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 형태가 되어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 정도가 낮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함.
-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에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과 표준시장단가제도의 시행 등이 주요 사안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그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2015년 3월 조사결과)

| 그림 4 | 기관별 경기실사지수

Ⅲ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1. 공사물량지수 (원도급, 하도급)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는 원도급이 71.4(60.2점→71.4점)로 상승, 하도급도 61.4(55.4점→61.4점)로 지난 분기보다 크게 높아짐.
 -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전과 다름없이 대형업체들의 원도급 공사물량지수에 대한 평가가 중소형업체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큰 폭으로 높게,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크게 높았음.
 - 하도급 공사물량지수에서는 원도급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역시 대형업체의 지수가 가장 높고 중소형업체와의 격차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원도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게,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앞서 살펴본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에서도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급증했던 충남지역의 경우 건축수주의 증가율이 토목수주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수도권보다 공사물량지수가 낮은 지방이라고 해도 개발소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해서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2015년 2/4분기 공사물량지수 전망에 있어서는 원도급은 이번 분기보다 감소하고 하도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분기보다, 혹은 1분기 기대치만큼의 공사물량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2분기에 대한 공사물량전망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수증가폭이 예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SOC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발주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써 일선의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표 7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15년 1/4분기 평가	71.4	85.7	72.0	68.4	85.7	61.9	96.3	55.8
	'15년 2/4분기 전망	65.7	57.1	80.0	57.9	78.6	57.1	85.2	53.5
하도급	'15년 1/4분기 평가	61.4	71.4	60.0	60.5	64.3	59.5	85.2	46.5
	'15년 2/4분기 전망	62.9	57.1	60.0	65.8	60.7	64.3	81.5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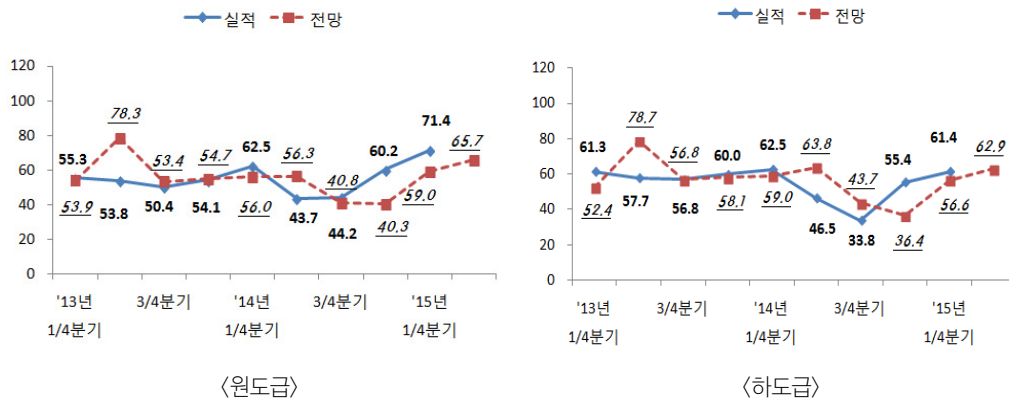


그림 5 | 원·하도급 공사물량지수 추이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는 공사대금수금은 90.0(80.7점→90.0점)으로 지난 분기보다 크게 상승, 자금조달은 62.9(68.7→62.9점)로 다소 하락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2014년 3분기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옴.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이 수령하는 공사대금의 약 20%가 어음이라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함께 때로는 수수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금수금의 어려움도 함께 감소하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건설한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이거나 또는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주로 대형업체)들은 실제로 공사수금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하지만

이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수금보다는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을 더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의 금융기관대출이 지난 4분기에 비해 늘어났으며 주된 용도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자금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곧 1분기의 공사수주 또는 수행물량이 이전 분기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참고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대로 인하하는 등에 따라 회사채 시장이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건설업에 대한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기업규모별 공사대금수금지수는 대형업체가 가장 높고 중소형업체와는 큰 격차를 나타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건축중심업종과 토목중심업종이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자금조달지수 역시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간의 격차가 컸으며 지역 및 업종별로는 수도권과 건축중심 업종이 높았음.
- 응답업체들의 2015년 2/4분기 자금관련지수 전망은 공사대금수금이 81.4로 이번 분기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자금조달지수는 60.0으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원·하도급업체를 불문하고 2분기에도 지속적인 공사물량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상황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 참고로 최근들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상황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원도급사의 원가절감분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의 편법발주같은 불공정거래임. 이 때문에 종전처럼 단순히 공사수주물량의 규모만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표 8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공사 대금	'15년 1/4분기 평가	90.0	100.0	88.0	89.5	89.3	90.5	88.9	90.7
	'15년 2/4분기 전망	81.4	71.4	80.0	84.2	71.4	88.1	77.8	83.7
자금 조달	'15년 1/4분기 평가	62.9	85.7	68.0	55.3	82.1	50.0	85.2	48.8
	'15년 2/4분기 전망	60.0	57.1	60.0	60.5	67.9	54.8	70.4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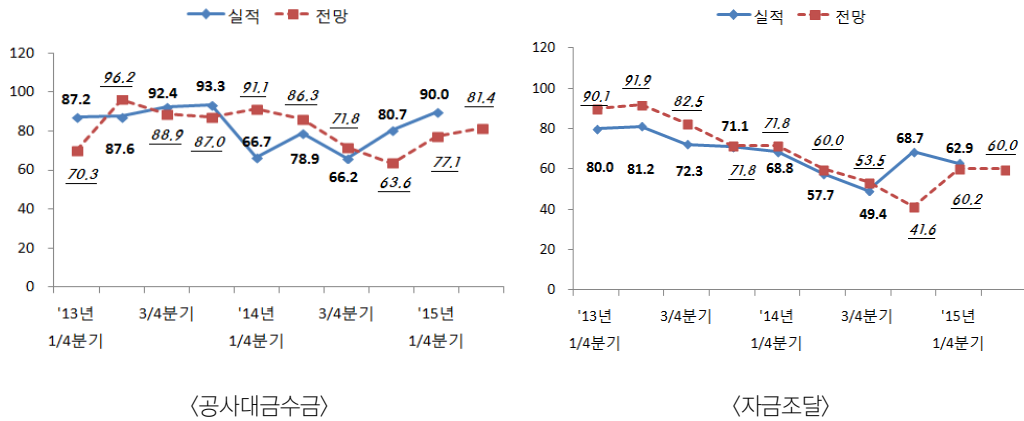


그림 6 |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추이

3.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 2015년 1/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81.4(85.5점→81.4점)로 3분기보다 감소, 인건비지수는 54.3(55.4점→54.3점)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지수가 통상적으로는 90전후를 유지하며 때로는 100이상의 수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로는 줄곧 80전후를 기록하고 있음. 더구나 이번 조사결과는 201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인력수급이 점차 고질화된 경영상의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10년간 건설업 등 단순 중사업의 취업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건설업분야에서 인건비는 다른 원가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부분이지만 건설분야가 여전히 높은 업무강도⁵⁾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를 받는 일자리로 간주되는 현실에서는 인력수급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음. 따라서 인력수급문제에 앞서 종합과 전문을 막론하고 건설업체들이 공사수행을 통해 적절한 공사비를 지급받는 관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인력수급지수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가 가장 높고 중소형업체간의 격차가 컸으며, 지역과 업종별로는 수도권과 건축중심 업종이 높았음. 인건비지수도 대형업체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과 업종별로는 수도권과 건축중심 업종이 더 높았음.
- 인력수급이 고질적인 현안사안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현장에서는 변함없이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데 반해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의 인력양성 및 고용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이는 직접시공 및 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모든 인력수요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사안이며, 이 때문에 현재는 안보 등의 이유로 금지되는 플랜트 건설현장까지 외국인력의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인력수급지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나 공사대금수급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다른 지수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인건비지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2/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77.1로 소폭 하락, 인건비지수는 57.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5) 더구나 건설현장은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이기도 함

표 9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인력수급	'15년 1/4분기 평가	81.4	100.0	72.0	84.2	89.3	76.2	85.2	79.1
	'15년 2/4분기 전망	77.1	85.7	72.0	78.9	75.0	78.6	70.4	81.4
인건비	'15년 1/4분기 평가	54.3	100.0	68.0	36.8	78.6	38.1	74.1	41.9
	'15년 2/4분기 전망	57.1	100.0	56.0	50.0	75.0	45.2	63.0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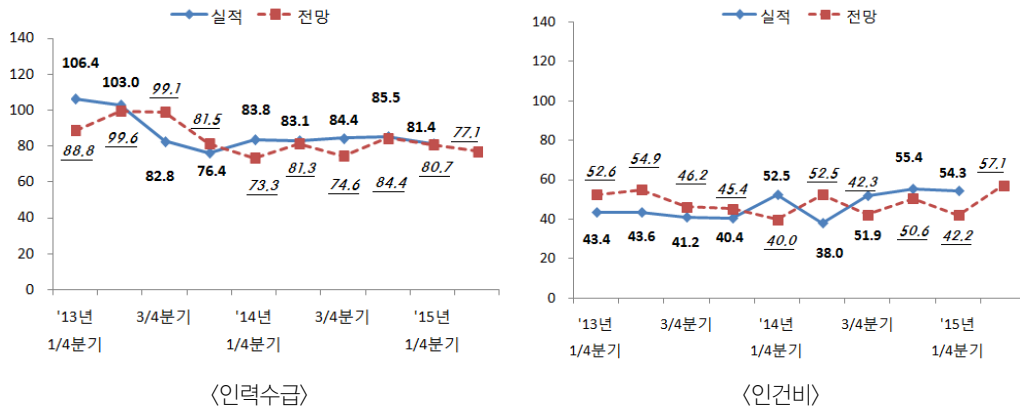


그림 7 |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4.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 2015년 1/4분기의 자재수급지수는 95.7(98.8점→95.7점)로 소폭 하락, 자재비지수는 49.4(49.4점→49.4점)로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을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자재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자재조달이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공사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재비는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공사에서는 자재가격⁶⁾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쉽지 않거나 처음부터 적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에 기인함.
- 전문건설업체들의 자재수급은 지난 분기보다 조금 어려운 것으로, 자재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사물량의 증가와 함께 자재업체와 건설업체간의 가격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자재수급지수는 2014년 1분기에 100이하로 떨어진 이후 작년 3분기에 100.0, 4분기에 98.8을 기록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도 그간의 하락추세를 지속함.
- 시멘트⁷⁾의 경우 국내의 생산업체수가 한정되어 있어 생산·출하량에 대한 집계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M&A시장에 상위권 업체들이 매물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최종 인수주체에 따라 추후 관련 건설자재의 가격경쟁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유연탄과 유류비 등의 원가하락을 이유로 시멘트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건설업체와 시멘트업체의 가격동결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된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와 골재⁸⁾, 수송비와 인건비가 주요 가격인상요인으로 현재는 건설업체, 레미콘업체, 시멘트업체간의 협의체가 가격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물론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와 레미콘 업체, 레미콘 업체와 시멘트업체간의 가격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음. 철근⁹⁾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성수기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해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6) 대표적인 건축자재인 철근의 경우 아파트 기준 건축비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지속적인 유가상승, 전기요금개편 등의 상황도 자재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침

7) 시멘트의 경우 상위 7개 제조업체가 연간 7~8조원 규모의 물량을 전국 레미콘업체들에 공급하고 있음

8) 골재 역시 산림골재 이외에도 바다, 육상, 수중, 파쇄 등으로 세분화 됨

9) 철근의 경우 건설업체와 제강업체는 2014년부터 '선 가격결정-후 공급(분기별로 철근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공급)' 방식을 도입함

표 10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자재수급	'15년 1/4분기 평가	95.7	100.0	92.0	97.4	96.4	95.2	96.3	95.3
	'15년 2/4분기 전망	94.3	85.7	92.0	97.4	89.3	97.6	88.9	97.7
자재비	'15년 1/4분기 평가	49.4	88.9	43.5	44.4	66.7	42.9	46.9	51.1
	'15년 2/4분기 전망	64.3	100.0	56.0	63.2	71.4	59.5	70.4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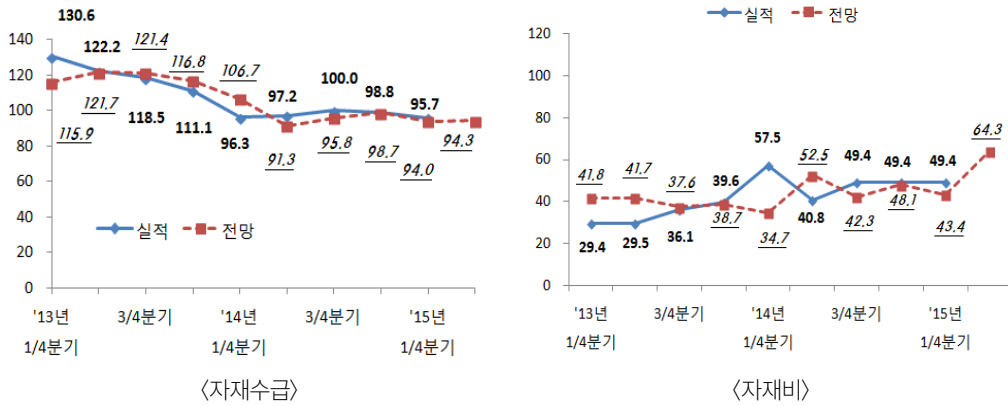


그림 8 |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IV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¹⁰⁾

-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수주부진이 전체 응답의 36.4%, 그 다음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23.6%)과 자금부족(11.4%)이 주요 사안인 것으로 조사됨.
- 그 밖에는 경쟁심화(7.9%), 불확실한 경제상황(6.4%),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5.0%), 건설자재 가격상승(4.3%), 건설장비수급(2.1%), 종합건설업체부도(2.1%), 불공정거래(0.7%)의 순으로 나타남¹¹⁾.

(단위: 응답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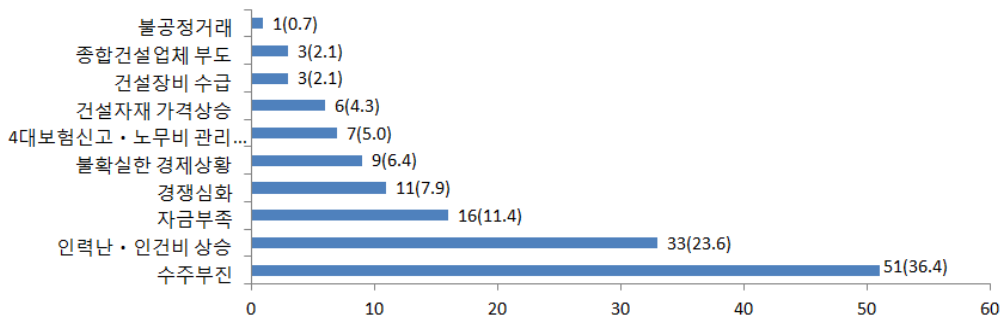


그림 9 |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5년 1/4분기)

10) 본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복수응답을 허용함

11) '현장관리'와 '건설장비수급' 항목은 2014년 1/4분기 조사부터 추가됨